

건강증과 치매와의 관계는?



건강증이란 어떤 사실을 잊었다라고 누가 귀찮을 해주면 금방 기억해내는 현상으로 흔히 정상인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장애는 귀찮을 해주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건강증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억장애와 치매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환자 한 분을 소개한다. 환자는 64세 할머니로서 약 10년 전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발견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한다. 약 3년 전부터 할머니는 어린 아이기를 한다그 어린아이를 까맣게 잊어버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으나 갈수록 빈번해져 1년 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할머니를 가족들이 짜하게 될 정도였다.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는 물건을 어디에 두고서, 두었던 장소를 잊어 버려 찾는 일이 많아졌고 돈을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놓고 하루 종일 찾는 일이 잦아졌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흠칫했다고 주장하여 아주머니를 책고한 적도 있었다.

남을 의심하는 경향 때문에 며느리, 손자와 인정을 한 적도 있었고 의심의 폭이 커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내 밥에 독을 넣었다고 주장하기 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 외출하였다가 길을 잃어 경찰이 모셔온 적이 두 번 있었고 기억장애가 심하여 주소가 바뀐 목걸이를 걸어드렸는데도 목걸이가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가족들은 노명은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찾지 않다가 최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남의 방을 두드리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할 때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게 되었다. 단층촬영과 뇌동맥 촬영을 한 결과 오른쪽 경동맥이 90%가량 좁아져 있었고 왼쪽도 60%가량 좁아져 있었으며 뇌혈관 세동맥(조그만 가지)이 막힌 결과로 뇌세포의 손상이 매우 심하였다.

이 환자의 치매는 혈관성 치매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 할머니가 3년 전, 기억장애를 처음 보이기 시작할 때에 병원을 찾았다면 그 이후에 나타난 심각한 노명증세를 모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뇌세포는 일단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도 늦게 발견하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기억장애는 치매의 초기상태를 말해줄 수 있다. 따라서 기억장애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약을 복용하여 치매를 예방하여야 하였다.



2006 직원 송년의 밤

2006년 12월 30일 저녁 수성관광호텔 연회장에서 대구시노인전문병원 직원들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열정과 끼로 뭉친 각 부서별 장기자랑시간도 전 직원 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르신 생신잔치

황금제지해라 불리는 정혜년 첫 문을 여는 희망찬 1월을 맞아 1월 19일 흥겨운 생신잔치가 문화공관에서 있었다. 생신잔치에는 김강호 국악 학원 외 여러 분들이 축하공연을 해주었다. 올 한해는 어르신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어르신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헌혈운동

1월 9일 대한적십자사에서 방문, 본원 직원들의 사랑의 헌혈행사를 열었다. 작은 사랑의 피 한 방울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헌혈운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헌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 참여 행사를 계기로 본원 전 직원들은 환자를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신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조그마한 사랑을 말없이 실천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애타게 수혈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직원 정기 산행

1월 20일 본원 산악회에서 구미 장천면 천생산에서 시산제를 가졌다. 하늘이 내렸다고 해서 천생산이란 이름을 얻은 이산승 주민들은 합치 박을 열어 놓은 듯한 모습을 마서 '병티산'이라고 부른다. 금오산성과 낙동강을 동서로 끼고 있는 천생산에서 산수화원들은 한마음으로 정혜년 한해 건강과 병원의 발전을 비는 시산제를 가졌다.



제 13기 간병사카데미 입학식

1월 15일 본원에서 제 13기 간병사카데미 입학식이 있었다. 대구, 경산시 거주자로 50세 미만, 고졸 이상 학력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아카데미 교육생들은 1월 15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 교육을 받았다. 간호대학의 교수진과 본원의 의사 및 수간호사 등 유능한 강사진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심습 또한 본원 병동에서 이루어졌다.